



5·18 망언 규탄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망언 여야4당 청년학생 공동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각당 청년위원장, 학생위원장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망언 3인방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18 왜곡·편향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제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맥쿼리, 광주서 7년간 3370억 챙겼다 2순환도로 투자약정금 2925억 넘어서

1구간 변경협약 고금리대출 늘어  
 높은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  
 3-1구간 올해 대출금 시한 끝나  
 불합리한 착취구조 털어내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이하 맥쿼리)가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에서 이자와 대출금 원금 상환을 통해 2568억9000여만원, 801억2000여만원 등 총 337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금액은 지난 2001년과 2004년 최초 맺은 1구간과 3-1구간의 투자약정금 1903억원, 1022억원 등 2925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1구간의 경우 7년간 광주시가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1336억 여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통행료 수입까지 포함해 과도한 대출금을 설정하고 고금리의 이자를 쟁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막대한 열세가 투입돼야 하지만, 이 같은 불합리한 '착취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못하고 있다. 1구간의 경우 지난 2016년 변경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맥쿼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2017년, 2018년 맥쿼리의 수익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1구간은 기존 대출금의 만기시한이 2019년으로, 맥쿼리가 2020년부터 또다시 고금리 자금을 대어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맥쿼리가 공개하고 있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맥쿼리는 1구간 운영업체 광주순환도로 투자(주)의 100%(330억5000만원), 3-1구간 운영업체 광주순환(주)의 75%(294억9476만여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들 운영업체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맥쿼리는 고금리의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고 있다. 이자와 원금의 원천은 광주시가 운영업체에 매년 지급하는 재정지원금과 시민들이 낸 통행요금이다. 1구간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까지는 연 10~20% 금리의 대출금 1772억 여원에 대한 이자수익으로만 매년 335억~347억여원을 챙겼다. 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면서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지난 2016년 말 맥쿼리와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851억원의 미지급금을 지불한 바 있다.

여기에 2016년 말 변경협약을 체결한 뒤로는 금리 10~20%짜리 대출금이 1772억 여원에서 2272억여원으로 500억원이 늘었다. 과거 이자 수익만 얻었던 맥쿼리는 지난 2017년부터 이자, 원금, 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해 522억8000여만원, 2018년에는 344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시의 재정지원금은 2017년 169억3800만원, 2018년 264억5400만원에 불과했다. 대출금 규모를 늘리고, 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2028년 계약기간까지 맥쿼리의 수익은 오히려 증가했거나 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1구간은 처음부터 1구간 변경협약 내용과 같이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수급했다. 7년간 최소 84억여원에서 최대 158억 여원에 이르는 금액을 가져갔다. 2006년 선순위대출금은 733억원이었으나 13년간 원금을 계속 갚아 2018년 현재 93억1000여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계약기간인 2034년까지 또다시 맥쿼리가 광주순환(주)에 다시 고금리 자금을 대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광주시의 명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 가다 터너·김기훈 마운드 신고식 > 20면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국당, 5·18 망언 3인방 '꼼수 징계쇼'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이종명 제명... 의원직은 유지  
 국민 기만·꼬리 자르기 비난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뒤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한국당 의원(113명)의 3분의 2 이상은 76명이다. 또 윤리위는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

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윤리위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꼼수' '국민 기만' '꼬리 자르기' '무책임' 등 각종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오늘 광주 모여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규탄한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광주에 모여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또 광주시의회 의원 23명도 14일 국회를 찾아 성명서를 전달하고 망언 국회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15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규탄대회에 앞서 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5·18의 역사적 진실을 모독하는 발언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

원도 망언을 쏟아 내며 동조해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시의회와 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제주도의회가 참여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5·18 왜곡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유공자 개개인과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통합을 해치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970년 독일에선 극우주의자들과 나치 추종자들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기 시작하다 급기야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를 날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며 "독일은 형법을 개정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합의한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애도합니다

(전남대 의대 41회졸업)

"이번 부친상을 위로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남 윤형찬 추도사주

국립중앙의료원  
 National Medical Center  
 중앙응급의료센터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전남대 의대와 동창회는 센터장을 기리며 추모기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유가족 후원 및 추모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500-478460 양한모(윤한덕 추모기념회)
- 연락처 : 062)220-4019(전남대 의대 총동창회 사무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 경 근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장 양 한 모